

주요개념 : 성 의미, 청소년, 중학생

중학교 청소년의 성 의미

정금희*·김신정*·양순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교통수단, 매스컴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화 등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기존의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과거와는 다른 성 문화를 나타내고 성 개념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하였다(김은영, 1991; 이영희,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국내에서도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와 함께 생활양식의 변화,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약화 등으로 세대간의 가치관의 혼돈, 성에 대한 윤리적 갈등, 성 의식의 개방적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김영희, 이명화, 1997). TV나 잡지, 광고 등의 매스컴 등에서 노골화된 성적 표현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통신, CD-ROM 등을 통한 음란물의 접촉, 물질적 풍요로 인한 영양상태의 개선과 개방화된 문화양식의 영향은 청소년들의 성적 조숙을 촉진하면서 정서, 심리적 갈등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향락산업의 번성은 개인의 성에 대한 윤리관을 변화시켰으며 인신매매의 성행 및 성 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임미림, 1996; 황은자, 1988). 서구의 성 해방 풍조가 급격히 밀어닥치고, 이성

교제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도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반면에 이에 대한 전통적 가정과 사회 규제는 크게 약화되고, 적절한 성 교육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 도덕은 문란해지고 성 범죄, 혼전 성 문제와 많은 미혼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부자, 1986; 한유정, 박인혜, 1996). 이러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문화와 가치의식의 혼돈 및 성 도덕의 문란 현상은 청소년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급성장과 2차 성징의 발현과 함께 성적 성숙, 성의 자각과 이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불안, 초조와 성충동 등의 심리적 동요가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성 윤리의 갈등, 고민이 많아지게 된다(김상옥, 남현철, 1992; 방미라, 1990). 청소년의 성 문제는 일생 동안 매우 중요한데,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의 습득원은 잡지나 동료, 친구로부터의 정확하지 않은 구전적 정보라고 나타났다(이운선, 1987; 정영숙, 1986).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대부분의 청소년은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나 인간 이해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개개인의 성 태도, 인식,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여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인섭, 1987).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성 의미를 조사하여 이들에게 맞는 성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적 비행이나 성 범죄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사전 예방하고 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육 지침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즉, 이를 통해 간호사는 청소년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 사정 도구 개발과 함께 대상자의 성장과 발달 수준에 맞는 효과적 간호중재를 계획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성 건강을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로서 중학교 청소년이 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성 의미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로(이은정, 1990),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 성은 시대와 형태를 초월하여 인간 사회에 깊숙히 파고 들어 문제점으로 존립해 오고 있다(김정태, 1992).

성이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것으로 무엇이라 확인하기 어려우나,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기본 욕구의 하나이다(김상옥 등, 1992). 성은 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시사해 주는 것이 많다. 인간의 발달은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며 어느 발달단계에도 성은 관계하므로, 성은 인간에게 일생 동안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시공을 초월하여 성이 인류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실제 생활의 표적적 현상보다 훨씬 크다.

전통적으로 '성'이라고 할 때는 성교(sexual intercourse)를 의미하였으나, 성이란 생식능력(reproduction)과 신체발달을 포함하고,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아(self), 즉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태도, 가치, 느낌, 신념 등 인간의 전체적인 면을 의미한다. Miller &

Telljoham(1992)은 성(sexuality)은 성(sex)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온정과 사랑을 주는 능력, 개개인의 자존심과 주체성, 개인의 성적 건강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성(sexuality)은 관계(relationship), 가족, 사춘기, 성장과 발달, 생식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고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결국 성이란 남녀의 성 행위와 그와 관계되어 파생된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차원에 걸쳐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은 개인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내에서 구성되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황은자, 1988).

Goldman & Goldman(1982)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성에 대한 생각은 극히 제한된 의미의 성으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성은 타고 난다고 보다는 배워가는 것으로 태어나면서 부터 사회화된다고 보며, 성적 동기유발은 생리적이거나 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아동의 성적 사고(sexual thinking)는 결코 무시하거나 은폐되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성은 모든 사람에게 강한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는 주제이며 생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사회성을 내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전 인격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신연식, 1971).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간의 평등을 성에 의해 좌절시키고 올바른 성을 가르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급격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의 필연적 결과인 성 개방 풍조, 다양한 성 의식 및 가치관에 대하여 부적절한 대응의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근래에 발생하는 성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고 가해자 역시 청소년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김진선, 1995).

인간의 발달과정으로 볼 때 청소년이란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약 10년을 포함하며 대략 11세에서 20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연희, 정문숙, 1993; 홍문식, 1989).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은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이 기간은 청소년의 전기에 해당되며 전 생의 전반부이고 생의 준비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육체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되는 기간이므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급격한 신체변화가 발생하며 생물학적인 2차 성징의 발현과 함께 내분비계 통과 생리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생식기능이 성숙되면서 성의 자각과 이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불안 초조 및 성 충동 등이 증가하는 성적으로 격동기이다(지형근, 1985; 홍문식, 1989). 그러므로 이 때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고민은 주목할 만하다(김상옥 등, 1992; 이은정, 1990). 그러나 그 누구도 성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성은 드러내어진 상태보다는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음성적이고 폐쇄적인 방법에 의해 배워지고 있는 현실이다(최순희, 1990). 청소년 지도육성위원회의 청소년 상담 전화의 내용중 가장 많은 것은 성 문제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수된 상담사례의 52%가 성 기능 장애나 성 관계 등 직접적인 성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옥철, 1990). 또한 성 생리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나 불건전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충동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다(김연희 등, 1993).

성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가 인생 주기상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데, 이는 한 개인이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중에서 핵심적인 시기로 성 역할 정체감, 자아 정체감의 형성이 청소년기의 중심적 발달과업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자기의 성을 어떻게 의식하고, 성에 따른 역할을 어떻게 내재화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정영숙, 1986).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인 성적 주체성 확립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본능적 충동이 증가하게 되어 성적 발달 장애를 초래하여 가정 및 사회생활 전반에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데(지형근, 1985), 이때 형성되는 성 의식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전한 성 의식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좌절감과 성적 일탈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주, 1997).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또래의 친구집단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 청소년의 행동은 친구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혼전행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김부자, 1986). Mirand(1968)는 청소년 개인의 성 행동이란 동료집단이 갖는 기대의 함수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성애의 관심이 생기고 신체발달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전환기이므로 부모의

이해와 관심 및 지도가 특별히 요구된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발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자녀에게 성 교육 및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가 소홀하며 따라서 성에 대한 자녀의 사회화는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주로 저속한 잡지를 비롯하여 친구, 선후배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하승실, 1989). 더구나 음란한 성 관계 기사와 사진을 통하여 습득된 성 지식은 불건전한 성적 의식을 형성하여, 바른 성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김진선, 1995; 이윤선, 1987; 홍문식, 1989).

또한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없고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성을 갖고 있으며 성 문제를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여 그릇된 지식을 심어주고 성에 대한 타부심을 갖게 하였다(한유정 등, 1996).

따라서 청소년 자신이 겪고 있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올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무지에서 오는 원하지 않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성문화 정화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의 성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자 중학생 22명과 여자 중학생 11명으로 총 33명이었다. 연구는 현상에 관한 진술이 반복되어 포화상태(saturation)가 되는 시기까지 연구 참여자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14-16세로 중학교 1-3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2개 여자 중학교, 2개 남자 중학교와 1개 남녀 공학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6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중학교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는 협조 공문을 통해 기관장에게 연구 참여를 허락받았다. 학교를 방문할 때는 수업시간을 피하고 학생이 편리한 시간으로 방과후나 특활시간을 이용하였고 방문 후에는 양호교사의 도움을 통해 1-3학년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학생에게는 연구자의 신분과 연구의 목적, 방법과 절차는 물론 참여자의 인권 보호 방법을 설명한 후에 연구의 참여를 허락받았다. 면담장소는 학교의 빈 상담실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학생이나 기타 여건으로 인해 면담에 방해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 연구자는 면담 전, 서로 질문하는 방법이 일치되고 편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면담동안 대상자는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연구자도 대상자와 같은 위치에 마주 보며 앉았다. 1회 면담 소요시간은 평균 20 - 30분 정도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소요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면담자료는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면담시에는 대상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했고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주거나 암시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관심있게 경청하였다. 면담 후,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료분석시 대상자를 재차 방문할 것을 허락받았으며 '성'에 대해 대상자가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방법을 근거로 3명의 연구자가 함께 진행하였다. 이는 중학교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녹음된 내용은 A4 크기의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고, 녹음을 들으며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원 자료를 연구자가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에 줄을 그으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간의 상호일치성을 확인하였다. 각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였는데, 대상자의 의도를 일반적 언어로 명확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모아진 구성된 명확한 의미를 원 자료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주제군으로 조직하였으며 자료분석 결과를 서술, 통합하여 기본구조를 확인하였다. 내용의 범주화는 문헌고찰 및 국어사전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주제군과 구성된 명확한 의미간의 타당도는 현상학을 이해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교를 재 방문하여 양호교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성 태도의 결과 내용을 전달하여 확인하였다. 27명의 중학교 청소년이 내용을 읽고 전체적 내용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며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IV. 결 과

연구에 참여한 남녀 청소년 33명에게서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은 302개였고 여기에서 74개의 명확한 의미가 나타났다. 이것은 15개의 주제군으로 유목화되어 나타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노출하면 야한 것이다.
3.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4. 이성이 서로 원하면 함께하는 성관계이다.
5. 남녀의 잘못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관계이다.
6.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7.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경향이 있다.
8. 평범하고 예사로운 것으로 신체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9. 살아가는데 필요하며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다.
10. 추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다.
11. 축스럽고 민망해서 감추고 싶다.
12. 허용되는 시기까지는 자제하고 참아야 한다.
13. 기성세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무관심하기를 강요한다.
14.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연상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15. 여자는 쉽게 당할 수 있다.

이상의 주제를 통합해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 중학생인 청소년은 성이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노출하면 야한 것이라고 느끼면서 일정한 접촉이나 노출로 보았다.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고 사랑하여 결혼에 이르고 서로 원하면 함께 하는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데, 비정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잘못된 만남 등의 모든 다양한 남녀관계로 보았다. 성이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고 남자가 평등하다고는 생각하여도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은 평범하고 예사로운 것으로 신체변화의 경험과 함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쑥스럽고 민망해서 감추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추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측면도 있다. 특히 청소년은 성에 대해 관심을 갖더라도 허용되는 시기까지는 자제하고 참아야 되지만, 기성세대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무관심하기를 강요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연상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여자는 언제든지 쉽게 당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진술에서 7개의 기본구조가 나타났다. 7개의 기본구조는 '신체적 접촉과 노출', '남녀관계', '남녀의 차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 '은폐해야 하는 것', '관심과 절제', '피해자로서 여성'이다. 기본구조별로 주제, 명확한 의미, 의미있는 자료를 대상자의 진술들과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구조 1 : 신체적 접촉과 노출

- 주제 1.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 주제 2. 노출하면 야한 것이다.

명확한 의미 : 남자가 가볍게 신체를 만지는 것에서부터 성교에 이르는 다양한 정도의 접촉이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 보여주는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을 야하게 느낀다.

의미있는 자료 : “남자친구 사귀는 애 많아요. 어떤 한 애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개방 손 잡았다고 팔장끼었다고 그런 얘기하고.... 거의 손잡아 보고 안아보는 거 정도 안아보면 좋대요.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상관 안하는 애들도 있고”, “체스00 키스씬이 있다고 하는데 찐하고... 남자랑 여자랑 만나면요 보보하는 거요...”, “남자랑 여자랑 침대위에서 성행위하고 뭐 그런거지요”, “친구들이 남자친구랑 그러는 거요... 처음에는 애네들이 왜 그러냐 했는데요... 영타에서도 나오잖아요 왜 성

관계하는 거 외국영타에서는 더 아해요”, “케이북 7/나 헬스기구 광고할 때 장난이 아니예요. 새벽 1시에 나오는 영타... 부부관계하는 거... 추석에 하는 영타 누드사진 그런거 왜 빨간 거 있잖아요... 쇼킹 아시아, 근흥아 근흥아 뭐 그런 영타보고 나서 얘기하고.. 드나타 되게 아했다고... 장난이 아니고 그런 얘기밖에 안해요.”, “잠지에서 어떤 여자가 그물로 된 옷을 입고.. 야한 속옷만 입고 있고요... 야한 여자사진이나 비디오방에 붙어있는 그런, 야한 매탁책이랑 청계천에서 많이 파는 누드사진 그런 거요. 그런게 생각나요... 지나가면서 여자들 옷차림에서... 여자들이 딱 노출하고.”

기본구조 2 : 남녀관계

- 주제 3.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 주제 4. 이성이 서로 원하면 함께하는 성관계이다.
- 주제 5. 남녀의 잘못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관계이다.

명확한 의미 :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으로, 건전한 이성교제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고, 서로 원하면 함께 성행위도 할 수 있다. 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남녀관계나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만난 잘못된 관계도 있다.

의미있는 자료 : “남자친구 얘기하고 그런거... 그리고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면 그냥 그런거... 또 더 크면 결혼하는 거요”, “부인한테 잘 해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진정으로 멋있게 사랑하는 그런 거요”, “이성교제 하고 그러고 싫어요. 남자랑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남녀가 정말로 사랑하는 거 그런 거지요... 남자랑 여자랑 살면서 서로 좋아하면 정말로 원하면 함께 갖는 관계 뭐 그런 거 아니까요...”, “부자집 남자에 양요 가난한 집 여자애랑 돈가지고 여자 그렇게 해요...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요.”, “잘못된 성관계를 가져서 그렇다. 어떻게 됐다. 미혼모가 애를 낳아서... 솔직히 그런 게 생각나요... 선생님라고 제자하고 그러구요.... 잘못된 성관계를 가져서 미혼모 어떻게 됐다.. 나이 차이가 많은데 사귀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나고 건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성관계 가져가지구 임신해서 낙태하구, 애들이 똥쓸것해서 얘기.... 버리구요”

기본구조 3 : 남녀의 차이

주제 6.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주제 7.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경향이 있다.

명확한 의미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성을 구분하고 이런 성 구별에 따라 사회적 성역할이 주어지는데 이성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남녀가 상황에 따라서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의미있는 자료 : “여자애들은 끈끈하고.. 남자애들은 끈끈하지 못한 것,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 여러가지로 특이한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구별짓고... 구분하는 거 쯤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신체 조건이랑요. 힘쓰는 건 남자가 더 잘 하겠죠”, “남자랑 여자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평등하고요 능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남자가 더 잘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일 안시켜주고...”, “옛날부터 남자는 대를 이어가는 존재니까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는 여자인 만큼 좋은 것도 있겠지. 전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잖아요. 남자가 모자란 것을 여자가 갖고 있고 요즘 애들은 다 비슷한 거(생각) 같은데 여자가 직장 가지면 남자도 집안 일을 해야한다. 그냥 같이 살면서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예요... 그대도 어떤 때는 여자 애들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애들은 안 때리고 남자 애들만 때리고...”, “군대가는 것 여자는 축산하고, 성격도 다르고 남자는 활동범위가 여자들 보다 넓어요. 여자들 보다 더 건강하고 사회활동하고 운동할 때도 힘이 세고 남에게 보호받지 않아도 되요”, “남자는 하늘이고 그런 거 싫어요. 평등하지 않고 사회에서 남자들만 우대하니까. 불공평해요. 여자인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여자가 싫어요. 남자랑 태어나고 싶어요. 남자가 좋은 거 같아요. 오빠한테만 잘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 딸이라고 되게 싫었어... 이성적으로는 평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힘이나 권력으로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싫어요. 여자는 요, 너무 조심할 게 많아요. 치마만 입어도 조심해야하고, 다치면 안되고 속살 보이면 그 옷은 절대로 못 입고 불편해요. 남녀는 평등한 거 아니 예요?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구조 4 : 자연스럽게 필연적인 과정

주제 8. 평범하고 예사로운 것으로 신체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주제 9. 살아가는데 필요하며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다.

명확한 의미 :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특히 성적인 신체 발달과 성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스스로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수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 성이란 살아가는 과정 동안 잘 알아야하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으로, 생명을 창조하여 자손을 남기는데 필요하다.

의미있는 자료 :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 같은 건 있어도 좋다고 느끼고요...성에 대해 관심을 느낀 적이 있어요. 중 1때... 남자랑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남자랑 여자랑 크면 큰수축 신체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거드랑이 턱 났다, 배꼽에도 턱 났다, 거기에 턱 났다. 턱도 많이 나고 자양스럽잖아요. 발기애기도 하고요. 좋고요... 새로워진다는 것이 신기해요”, “뭔경이나 뭐 그런 거 귀찮기도 하고요, 어른이 턱 징후라는 것 당연하지요. 자연적 현상이니까 그런 여차피 사살마다 겪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커가면서 그냥 적응해 갔다..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런 현상인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돼는 거지요. 꼭 필요한 거구요,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되는 거요... 아기 출산할 때 모습 그런 거요. 후세가 없어지니까...자손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종족보존이랄까”, “성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중간이지요. 그런 행위가 나쁘게 쓰일 때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어떤 때는 성이랄 게 있음으로 해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도 있고 구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은 거 같구요.”, “재미있다고 말할 수도 없구요. 그냥 중간이에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호예요...성이랄 것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있는 일이지요.”

기본구조 5 : 은폐해야 하는 것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

주제 10. 추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다.

주제 11. 썩스럽고 민망해서 감추고 싶다.

명확한 의미 : 성에 대해 생각하거나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면 지저분하고 음란하여 기분이 이상해서 뭔가 감추어야 할 것 같다고 느낀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나

상황에 부딪치면 어색하고 부끄러우며 창피해진다.
 의미있는 자료 :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몰라도 아는 척 할 때도 있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볼 때도 있고,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도 몰라? 순진해 같고 그대요”, “대충은 알아도 ... 그대도 잘 모르는 척하기도 해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짹짹해요.. 이상한 쪽으로 지저분하고... 음탕한 것봤는데... 드럽고 징그러워요. 저런 이야기 왜하나 추해보여요.”, “아기 보면 이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징그러워요.”, “별로 기본이 안좋아요. 면땡하고 썩스럽고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러구 뭔가 감추어야할 것 같고. 그런 거 딱 봤을 때는 느낌이 항당했어요.”, “부끄러운 거 지은 TV에서 보니까 나쁜 것밖 나오니까 비디오 보고 그런 거 보고 얘기 들으면 부끄러워요. 혼자서 조금 두근거리고요.. 딱 오존도 딱럽고 그대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똥수첩이나 TV에서 십대 청소년 매춘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좀 너무 한타 싶고 보기 싫어요... 추해보여요.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하고요.”

기본구조 6 : 관심과 절제

- 주제 12. 허용되는 시기까지는 자제하고 참아야 한다.
- 주제 13. 기성세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무관심하기를 강요한다.

명확한 의미 : 성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끌리는 마음이 생기지만 성인이 되고 환경적 상황이 허용될 때까지는 관심을 갖지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기성세대로부터 강요받기도 한다.

의미있는 자료 : “나중에 결혼해서는 좋은데요, 지금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좀더 커서하는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안티요. 다 컸다고 자신이 느낄 때까지요. 있는 건 괜찮은데 아무 때나 하면 안티고요. 때때 장소측 가려야지요.”, “미혼모나 사생아 그런 거 안티고요. 정정당당하게 결혼해가지구.... 아직 그렇게 많이 알 필요없는 거 같아요.”, “참아야 아쥬. 자기고먼으로 갖고 있는 거쥬.... 스스로가 해결해야하지요.”, “저희 집에서는 그러세요. 성이싼 성자 근처에도 가지 말고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성이싼 말만해도 큰입 나는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해요. 제발 그냥 자연적으로 익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 들여 졌으면 좋겠어요...어른들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텐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구조 7 : 피해자로서 여성

- 주제 14.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연상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 주제 15. 여자는 쉽게 당할 수 있다.

명확한 의미 : 여자는 남자에 비해 항상 조심해야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주위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한다.

의미있는 자료 : “여자들은 불편하게 많은 거 같아요. 옴도 조심해야하고, 희층, 강간, 협박, 음탕전랑, 전랑오면 폭하고 끊어요. 그리고 맨날 그러 같아요. 일찍 들어오고..조심해라”, “TV에서 나오는 성 폭행 같은 거, 영화에서도....번태등 길거리에서 바지 벗고 있는 거요... 내리떡길 가는 길에 아저씨들이 숨어있다고 그런 얘기 났길 다닐 때 조심하고... 성폭행 같은 거 막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싫어요. 여자가 아기 낳고 성폭행 당할 지도 모르고 그런 거 때문에...여자는 성폭행 당하면 살기가 그렇고 주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옆집애가 옆집 아저씨한테 .. 여자가 아무리 방어해도요 남자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성폭행 그런 거 나쁘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웃으면서 재머있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남자는 참 나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낙태는 나쁘다고 보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남자가 잘못된 거예요. 여자는 힘들잖아요. 대부분 남자는 도망가요. 남자랑 여자랑 얘기가 만약 생기면요 남자는 그 다음에 막랄 수 도 있는데 여자는 온 거의 다 책임지잖아요. 남자는 별로 책임이 없잖아요. 남자는 그냥 지나가 버려도 되는데 여자는...”

V. 논 의

성은 삶에서 중요하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은 물론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관계된다. 또 성은 성장 과정에서 생활에 대한 태도와 성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된다(박현선, 1986). 특

히 청소년기에는 성적 성장이 매우 왕성하여 성이 청소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모든 생활에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서울시교육연구원, 1989).

성의 개념은 애매하고 그 정의도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가치, 신념, 성행동과 성적 표현 등은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되고 전달되며 인간생활 속에서 규정되어 지고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성의 개념은 모호하고 그 의미도 다양하여 성을 분석적, 기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누구나 알아야 하고 누구든지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인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청소년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한 대처와 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경험세계 속에서 표현되어 지는 성 의미에 대한 구조를 탐색한 결과에서 나타난 7가지 기본구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성에 대해 가장 많이 진술한 것은 가벼운 접촉에서부터 성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체적 접촉이나 신체 노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베이커와 엘리스트(1982)는 성 관계는 인간의 주된 관심이면 서로 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연출하는 행위로 보았다. 청소년이 성을 주로 성 관계로 보는 것은 다양한 성 매체, 또는 동료친구들의 경험세계를 통해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매스컴과 또래집단이라는 주장과 일치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이홍구, 1975).

특히 오늘날 다양한 대중매체는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상품가치로 전환시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확대에 편승하여 각종 광고, 선전을 통한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실례로 여성과 무관한 상품에서도 여성의 육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의 촉진 도구로 활용하고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는 드라마 등은 성 산업을 발달시키며 청소년의 호기심을 부추기고 대중 성문화의 타락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중매체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전달하여 의도와는 달리 교육적 성격을 내포하면서도 반드시 교육적일 수만은 없다는 점이 성 의식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성관련 정보화의 비대는 오히려 풍요 속에 빈곤을 낳아 잘못된 성인식을 통해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은 이러한 매체에 무방비 상

태로 방치되어 있어 불건전한 성정보는 올바른 성지식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녀관계'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사랑과 생명 그리고 인간관계가 기본이 되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성으로, 자신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성으로 보았다. 청소년은 성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으로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성적 발달과 성숙을 경험하는 것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으로 건전한 이성교제는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원하면 함께 성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학교 성교육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이 실시되지는 못하였더라도, 6차 교과과정에서 성교육 관련 교과목의 통합과정의 적용과 확대와 초등학교에서 남녀 합반의 확장 등은 중학생의 성 구조에서 부분적일 지라도 성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연스런 과정으로 경험하고 남녀의 인간관계로 표현되는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나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만난 잘못된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미혼모", "인신해서 낙태하고", "못속 짓을 해서 애기... 버리고" 등의 양면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성적 욕구는 본능적 충동과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도 충족 될 수 있는데, 이때 성적 욕구 배락은 육체적인 동시에 심리 정신적인 것이다. 이는 인간의 성이 자연적인 욕구이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로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함재봉, 1995).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성적 특성으로 이성교제와 관련된 내용이 청소년 성 상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이순열, 1996). 사춘기의 이성과의 자연스런 만남은 평화로운 삶의 기초이자 원만한 인간 관계의 시작이다(김상옥 등, 1992). 그러므로 청소년 초기에 이런 양면감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남녀 성 생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전한 이성교제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잘못된 만남으로 초래되는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남녀의 차이’라는 기본구조에서 청소년들은 남녀의 구별로서 성은 당연하다고 보았고, 이상적으로는 남녀차별이나 불평등이 없어야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많은 불평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두가 성폭력과 남자와의 성 관계에서 항상 여성이 책임과 질책을 모두 감당해야하는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한 견해로 나타났다. 사회 변화로 남녀의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은 큰 변화를 가져와 남녀간의 지위는 평등화되고 그 역할은 동질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이은숙, 1977).

그러나 이론적인 남녀평등과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내재하여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회제도가 외형적으로는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태도나 가치관은 여전히 전통적이어서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많은 갈등을 낳게 한다(이동원, 1976).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여성적 특성보다 남성적 특성을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여기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으로 믿게 하여 여성은 많은 영역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Rosen, Voget, Bee & Broverman, 1986). 과거처럼 남녀 차별은 당연한 현상으로 수용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의 자각에 따른 남녀평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 편견, 성차별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김동일, 1991).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 태도에서도 “남자는 하늘같고 그런 것 싫어요... 평등하지 않고 사회에서 남자를 우대하니까 불공평해요”, “남자랑 여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평등하고요 능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남자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여자는 억압시켜주고..”, “저는 싫어요 여자는 너무 조심할 것이 많아요, 치마 입어도 조심해야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등 남녀의 평등을 인식하지만 사회 구조 속에서 가부장적 남성주도적 성 차별적 고정 관념에는 큰 변화를 볼 수 없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에게 남성의 절제 보다 여성의 경계를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남녀 역할의 분리로 남성성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반면 여성은 약간 부족한 비정상 상태라는 의미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학습되어지고 전달되며,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부모교육학회편, 1998).

그러나 청소년의 성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사회화의 기

본적인 장이 가정이고 성숙하면서 학교나 지역사회이므로 여기서 바른 성 역할과 가치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서 성역할의 재구조화와 양성성으로 여성과 남성적 행동을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필연적 과정으로 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불편하고 창피해서 감추고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은폐해야 하는 것’으로도 생각한다. 이런 것은 청소년의 이중구조적 성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을 지나치게 성기 중심적 성 관계로서 보거나, 아직도 사회규범이나 관습은 성을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부끄럽고 더러운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금기시 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김영필 등, 1996). 이런 성의 이중적인 태도가 성의 상품화를 더 촉진하고 성적 문란을 가져오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성적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과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에게 특징적으로 성에 대한 의미로 ‘관심과 절제’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나중에 결혼해서는 좋은데요, 지금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좀더 커서 하는 것이잖아요”, “다 컸다고 자신이 느낄 때까지요”, “때때 장소를 가려야죠” 등 허용되는 시기까지는 자제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이며 절제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인 반면, 기성세대의 무조건적인 절제의 강요에서는 적잖은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성적 성숙과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되는 시기이지만, 책임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절제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지나친 부정적 성 고정관념으로 무조건적인 절제를 알게 모르게 강요하므로 부담스럽고 저항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황은자, 1989).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의 변화로 이에 대해 불안과 호기심을 함께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성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 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원하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성적 실패자로서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강요받게 된다(이계화, 1988). 더구나 이 시기는 이성교제, 연애, 결혼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막연히 자기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특히 성욕의 발산과 많은 사회적인 성문화의 자극으로 인한 영향으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기성세대와의 성 도덕관의 차이는 때로는 억압된 형태나 혹은 방입적인 형태로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시대적 흐름을 보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성에서 성 지식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알아야 하고 어른이면 누구나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사항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 교사, 사회적 지도자 등 기성세대의 성에 대한 가치나 사고는 아직도 청소년을 성행동의 주체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성기 교육이나 순결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최수일, 1996). 90년대 이후 성폭력 증가와 관련해 성폭력 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기성 세대의 성태도가 청소년의 성적 성숙을 수용하는 우호적인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기성세대의 우호적인 성 의식의 변화가 전제될 때 청소년들의 이중적인 성의식에서 보다 건전한 성 의식으로의 태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연상과 함께 여자 청소년인 경우, 여성은 쉽게 당하는 존재로 '피해자로서의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자는 주위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성문화는 성개방 풍조의 확산과 성 관련 정보의 홍수로 인해 성 윤리가 변화되어 순결이나 정절을 강조하기 보다 성은 즐기는 것이라는 관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기존의 지배적인 성 윤리관이 남성다움의 고정관념으로 남성의 공격성을 찬미하여 성폭력 가해자로,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만들며 남성의 난잡한 성행위와 방종을 남성다움으로 보고 여성에게 순결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 규범 역시 남성의 성 일탈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영자, 1989).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태도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성윤리관에 근거하여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여성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이다. 국내 성폭력 현황을 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의 성폭력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강간피해여성 중 2.2% 신고율로 실제 발생건수를 추정한 결과 한해 평균 25만건 이상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로 보고되었다(이명숙, 1999). 또한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1996년도 한해동안 접수된 1,779건의 상담건수 중 97%가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여성이 성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성교육 측면이다. 우리 나라는 공식적인 성교육이 미약하지만 학교 성교육과 지역사회 성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성교육의 경우 생식기능의 단편적인 성교육에 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교육은 부재한 상태로 실제 발달단계에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성교육 기관에서 성교육 지도자 교육, 청소년 성교육과 전화상담, 문제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양순옥, 정금희, 1998).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성문제의 증가는 사회적 관심을 낳게 되었고 예방의 심각성으로 성폭력 예방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에서 여성이 성 피해자라는 의식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바른 성 의식을 함양하여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여성의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7가지의 기본 구조와 14가지의 주제를 Brucess & Greenberg(1988)가 제시한 성 개념의 내적 요소와 비교해 볼 수 있다. Brucess와 Greenberg는 성이란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생리적 영역을 포함한 통합체로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영역은 성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총체를 의미하며, 정신적 영역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적 태도와 감정들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경험으로부터 성에 대한 학습된 부분을 의미한다. 도덕적 영역은 인간적 또는 종교적 믿음에 의해서 토대가 형성된 옳고 그름의 관념과 관련이 있다. 생리적 영역은 주로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든지 생식, 사춘기, 임신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일반적인 성장발달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성의 의미를 명확히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4개의 요소와 비교해 보면, 생리적 영역과 주로 관계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 과정', '신체적 접촉과 노출', '남녀의 차이'를 들 수 있고, 사회적 영역으로는 '남녀의 관계', '관심과 절제',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들 수 있으며, 정신적 영역으로는 '은폐해야 하는 것', '피해자로서의 여성'이 주로 관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영역과 관계되어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주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개념적 구조

에서는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역과 과거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관념이나 가치와 윤리와 관련된 도덕적 측면의 성 의미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개방된 성문화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가치의 확립을 준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사회에서 성 불감증이나 성 윤리의 아노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한국부모교육학회편, 1998).

따라서 청소년이 바른 성에 대한 가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성적 성숙과 발달은 물론 남녀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의 포괄적 성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이 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성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확인하여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중학교 재학생인 남녀학생 총 33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1998년 6월부터 9월까지 하였다. 자료분석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Col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방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15개의 주제군은 다음과 같다:

1.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노출하면 야한 것이다.
3. 남자와 여자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4. 이성이 서로 원하면 함께하는 성관계이다.
5. 남녀의 잘못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관계이다.
6.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7.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경향이 있다.
8. 평범하고 예사로운 것으로 신체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정이다.
9. 살아가는데 필요하며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다.
10. 추하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다.
11. 축스럽고 민망해서 감추고 싶다.
12. 허용되는 시기까지는 자제하고 참아야 한다.

13. 기성세대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무관심하기를 강요한다.

14.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연상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15. 여자는 쉽게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군에서 도출된 7개의 기본구조는 '신체적 접촉과 노출', '남녀관계', '남녀의 차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 '은폐해야하는 것', '관심과 절제', '피해자로서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고등학교와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추후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성 의미의 속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성 태도 측정도구의 문항을 개발한다.

참 고 문 헌

- 김동일 (1991).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 김미주 (1997).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부자 (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 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상욱, 남철현 (1992).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 행태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42-65.
- 김연희, 정문숙 (1993).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0(2), 40-55.
- 김영희, 이명화 (1997).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2), 255-275.
- 김은영 (1991). 한국인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정태 (1992). 청소년의 성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38-41.
- 김진선 (1995). 성교육이 국민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74-189.
- 박현선 (1986).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문제에 전달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방미라 (1990). 성교육이 여고생이 성에 대한 지식 및

- 태도에 미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48-58.
- 서울시 교육연구원 (1989). 성교육의 새로운 방향. 수도교육, 114.
- 신연식 (1971). 올바른 성 이해. 계명대학보, 5, 71-79.
- 양순옥, 정금희 (1998). 제대로 알면, 자녀의 성교육 문제 없어요. 서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이계화 (1988). 중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동원 (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논총, 29,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29-265.
- 이영자 (1989). 성 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 5(10), 90-119.
-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인천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옥철 (1990).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도 조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73-85.
- 이운선 (1987).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은숙 (1977). 한국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한국사회학, 11, 95-107.
-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지식 및 태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85-100.
- 이인섭 (1987).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순열 (1996). 성교육 지도안 -교사용. 서울: 서울시교육청.
- 이흥구 (1975). 교육사회학. 서울: 재동문화사.
- 임미림 (1996). 중학생의 성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8(2), 201-212.
- 정영숙 (1986). 고등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가정환경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 석사학위논문, 서울.
- 지형근 (1985). 학생 및 청소년의 성관심도와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수일 (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순희 (199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 119-134.
- 하승실 (1989). 초등교육에서 성역할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한국부모교육학회 (1998). 성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한유정,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간호과학논집, 1(1), 23-40.
- 함재봉 (1995). 성해방과 정치해방, 프로이드에서 푸고까지. 사회비평이론, 13.
- 홍문식 (1989). 한국 청소년 성실태 고찰.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1), 22-33.
- 황은자 (1988).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Brucess, Greenberg(1988). Sexual education-theory and practice. NY: Macmillian pub com.
- Cola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man, J., & Goldman, R. (1982). Children's sexual thinki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Rosen K., Voget S. R., Bee H., Broverman I. K., Broverman D. M. (1986). Sex role stereotype and self-concept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 Mims, F. H., Brown, L., & Lubow, R. (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ursing Research, 25(3), 187-191.
- Miller, D. F., Telljoham, S. K. (1992). Health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WnC, Brown Publishers.

- Abstract -

Key concept : Meaning of sexuality,
Adolescence,
Middle school students

Meaning of Sexual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Jeong, Geum Hee · Kim, Shin Jeong*
Yang, Soon Ok***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meaning of sexuality in middle school girls and boys,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done. We made the in-depth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33 participants from July to October 1998. We analyzed the data according to the Col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fter repeated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data, 15 themes and 7 basic structures were deduced. Followings were 7 basic structures: physical touch and exposure, relationship with male and femal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natural and inevitable life process, something should be hidden, interest and abstinence, and female as victim. According to above results, we would like to propose followings on the sexua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irst, the research on the meaning of sexuality of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hould be followed-up. Second, the measuring tool of sexual behaviour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including the contents of 15 themes and 7 basic structures of this stud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Chunchon 200-702,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oyang@sun.hallym.ac.kr)